

# 자전거 탄 기도회 안내 및 예식문

## ■ 취지

- 2020년부터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매년 기후위기를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자전거 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공공자전거)를 빌려 타고, 몸자보를 붙이고 시내를 달리는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은 자전거가 기후위기 시대에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와 대비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이 함께 몸자보를 붙인 채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기도회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함께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 ■ 준비

### ○ 자전거 행진 경로 설정

- ▲ 도로로 달리시는 경우 행진 집회신고가 필요합니다.

### ○ 몸자보 준비

- ▲ 자전거의 경우 손에 드는 피켓 등이 제한적인 관계로 옷핀 등으로 고정 가능한 몸자보 혹은 착용하는 몸자보가 좋습니다.

- ▲ 몸자보의 문구는 '907기후정의행진'의 기조 세 가지와 11가지 요구안을 참고해주세요.

#### # 907기후정의행진 기조

-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진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막고,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해 함께 행진합니다.
- 오직 돈벌이를 위한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개발 사업을 막고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진합니다.

#### # 907기후정의행진 요구사항

- 불평등이 기후재난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노동권·기본권을 보장하라.
- 위기에도 존엄하게 살 권리! 차별 철폐, 돌봄 증진, 공공 의료 및 공공 교통 확충하라.
-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폭주를 멈추고 에너지정의 실현하라.
- 기업을 위한 무한정 에너지 공급과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 탈석탄·탈화석연료 계획 마련하라.
- 민주주의와 공공성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롭게 전환하라.

- 노동자·시민 주도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사회정의에 기반한 산업구조 실현하라.
-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보 사업을 철회하라.
- 농업재해 대책과 생태농업전환 계획 수립하고,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고, 동물 착취 시스템을 철폐하라.
- 무기 수출·전쟁 지원 중단하고, 군비 축소·반전 평화 실현하라.
-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
- 기도 순서자 섭외 및 행진 참여자 홍보
  - ▲ 아래 예식서에 맞추어 함께 기도와 예식에 참여할 이들을 섭외해야 합니다.
- 공공자전거 대여
  - ▲ 서울시 따릉이 등을 비롯해 지역 공공자전거를 대여하여 함께 모입니다.

## ■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자전거 탄 기도회 안내

- 일시 :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집합장소 : 정부 서울청사
- 행진경로 : 서울청사-시청(대한문)-용산 집무실앞

## ■ 제안

- 기후정의주건을 맞이하여 함께 자전거 탄 기도회를 조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황상 자전거 탄 기도회를 기획하기 힘들다면 양식에 맞추어 걷기 기도회 등을 진행 하셔도 괜찮습니다.
- 인증샷 및 소감 등을 해시태그(#자전거\_탄\_기도회, #기후정의주간, #907기후정의행진 등)와 함께 SNS에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예식문

### ◆ 시작예식

#### ◇ 초대 / 다같이

● 인도자 :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18)

◎ 다같이 : 정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오늘 평화를 위한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소서

#### ◇ 여는 찬송 /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같이

\* 2절 정의, 3절 생명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a hymn.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music, each with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The key signature i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s.

오 소 서 - 오 소 서 평 화 의 - 임 금

우 리 가 - 한 몸 이루 게 하 - 소 서 아 멘

#### ◇ 첫 번째 기도 / 말은이

-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불평등과 부정의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도

(예시) 하나님, 우리는 심각한 기후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은 우리 이웃의 삶을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 목숨을 잃은 이들, 폭염으로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바라만 봐야 하는 농민들, 바다의 변화로 인해 생업의 위기에 내몰린 어민들, 산불에 내쫓기고 죽음 당하는 동물과 재가 되어버린 나무들, 개발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불평등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정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안내

- 인도자 : 이제 자전거에 올라 다음 장소까지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는 안전에 주의 해주시고, 대열을 갖추어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중 000(행진안내자)의 안내를 잘 듣고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행진

◆ 중간 기점 예식

◇ 두 번째 기도 / 공동기도문 / 다같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과잉소비는 당신의 창조세계를 파괴했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나의 편함과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당신의 창조세계는 이제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으며, 인간의 탐욕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역대 최고의 추위, 더위, 가뭄, 폭우, 폭설이라는 말들이 우리들의 귀를 채웁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이상기후일지 모르지만, 약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비장애 중심 사회에서의 장애인은 이동과 접근의 제한으로 쉽게 고립되고, 여성들의 몫으로 맡겨진 노동의 현장은 위기 상황 속 쉽게 큰 피해에 노출됩니다. 농어민들의 삶은 위협받고 있고, 생물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도시 빈민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죽음의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옥외노동자들은 그들의 일터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지쳐갑니다.

이 사실을 외면한 채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계 연한을 넘긴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물 문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폐쇄계획으로 인해 실직에 놓이는 수천명의 노동자를 외면합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온갖 대규모 개발 사업은 오직 돈벌이, 이윤만을 추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참히 짓밟히는 세계와 존귀한 생명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탐욕을 기반한 정책과

삶을 내려놓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며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과 맞서게 하소서.

불평등과 부정의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기후재난의 현실과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목전에 다가온 지금, 말로만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주님. 이번 9월 7일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등 생태계 파괴 개발사업에 맞선 여러 현장을 기억하고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약자들의 편에 서셨던 주님!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주님!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당신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하오니 지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인류 구원과 창조세계 회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는 곳마다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현장 이야기 / 말은이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막고,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전기를 통해 많은 편리를 누립니다. 그리고 겨울엔 가스와 석유, 전기를 통해 추위를 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의 많은 부분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통해 만들어지고, 공산품의 많은 경우는 석유를 기반원료로 생산되기도 합니다. 이 전기는 보통 지역에서 생산되어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으로 옮겨집니다. 이를 송전하기 위해 지역에는 엄청난 송전탑이 건설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정의로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핵발전을 멈추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로 '탈핵'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핵발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보았듯 핵발

전소 사고는 결국 엄청난 인명 피해를 끼치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맙니다. 한국에는 20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존재하고, 한 지역에 많게는 8기 이상의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사고 발생 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들이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기체, 액체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사람을 피폭시킬 위험이 있는 독성물질입니다. 게다가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는 수조에 보관됩니다만 경주 월성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파손으로 인해 핵발전소를 통과하는 지하수에 유입되는 등의 문제들도 일어납니다. 관리부실과 실수, 자연재해 등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은 늘 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우 갑상선암을 비롯한 다양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질병을 겪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은 핵과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진흥 정책을 말합니다. 핵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외면한 정책입니다. 핵발전은 멈추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내뿜을 뿐더러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할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도 발전소의 폐쇄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냥 폐쇄될 경우 발전소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됩니다.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산업전환에서 일자리를 보장하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누군가의 삶을 망쳐놓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됩니다.

공공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민간 자본에 맡겨진 재생에너지가 아닌 민주적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너지가 삶에 필수적인 것이기에 한전과 같은 공기업이 전력 수급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이었습니다. 해외자본 혹은 거대자본이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을 잠식한다면 요금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 자체의 위기로 드러날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설 단초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정의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후위기의 공범이 되지 않

기 위해 우리는 탈핵·탈화석연료를 이루고,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눈감는다면, 그리고 송전탑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기를 실어나르며, 지역의 눈물에 대해 침묵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찬양 / 찬송가 460. 뜻 없이 무릎 꿇는 / 다같이

1. 뜻 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뤄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2.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 안내

- 인도자 : 이제 다시 자전거에 올라 다음 장소까지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는 안전에 주의해주시고, 대열을 갖추어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는 중 000(행진 안내자)의 안내를 잘 듣고 따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행진

◆ 달는 예식

◇ 세 번째 기도 / 말은이

- 돈벌이를 위해 진행되는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개발사업 대신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기도

(예시) 생명의 하나님, 난개발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 파괴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나무 한그루도 창조하지 못할 이들이 함부로 나무를 베어내고, 꽃 하나 움푹우지 못할 이들이 꽃들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망가뜨리며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른 이들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강탈하여 그곳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공간을 세우는 이들을 심판하여주십시오. 공항과 케이블카, 4대강의 보와 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녹색 은총을 지웁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은총으로 회복되게 하여주십시오.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주십시오. 기후위기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달는 찬양 / 다같이

## 우리 오늘 눈물로

고형원

(원제 : 우리 함께 보리라)

우 리 오늘 눈 물로 -한 양의 씨앗을 심-는 다  
 꿈 꿀 수 없 어 무너진 가슴 에 저 들 의 푸른 꿈 -다시 돌 아 나 도 록-  
 우 리 함 께 땅 흥 려 -소 망 의 길 을 만-든 다  
 내 일 로 가 는 길 을 찾 지 못 했 던 저 들 노 래 하 며 달 려 갈 그 길  
 그 날 에 -우 리 보 리 라 -새 역 이 승 같 은 저 들 일 어 나  
 뜨 거운 -가 승 사 랑 의 산 으로 -이 땅 치 유 하 며 -행 진 할 때  
 오 래 환 제 하 였 던 -이 땅 어 디 서 나 순 결 한 꽃 들 피 어 나 고-  
 푸 른 의 의 나무 가 -가 득 한 세 상 우 리 함 께 보 리 라

Copyright (C) 고형원 . Used by Permission.

◇ 공동 축도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 그대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그대들을 고이 보시어서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